

# 영어 동사성 합성어에 대한 단어-기반적 분석

장용선  
(삼육대학교)

Jang, Yong-Seon. 2006. A Word-based Model Approach to English Synthetic Compounds.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14(3), 155-176. In the morpheme-based model, synthetic compounds are formed by affixation and compounding governed by lexical or syntactic rules. Within this framework, therefore, most previous studies have highly taken into account the internal structure for synthetic compounds. Taking a word-based model approach, however, this paper argues for a new approach based on word schemas representing morphological correspondence between words in the lexicon. Within this approach, it will be shown that we can account for various processes in a uniform way, i.e., synthetic compounds, exocentric ([N+V]/[V+N]) noun compounds, and [N+V] verb compounds derived by back-formation. During the discussion, we will employ the concept that the lexicon consists of words and word schemas, not of morphemes. When forming synthetic compounds, therefore, there is no process of attaching an affix to a root and, as a consequence, the controversy over the internal structure for synthetic compounds (i.e., [[N V]-affix] or [N [V-affix]]) will be easily resolved.

주제어(Key Words): synthetic compound, word-based model, word-schema, morpheme-based model, back-formation, exocentric compound

## 1. 서론

동사성 합성어(synthetic/verbal compound)는 동사에 접사를 첨가함으로써 파생된 핵(head)이 동사의 논항구조를 상속하고 그 동사의 내부 논항이 합성어의 비핵(non-head)에 의해 충족되는 단어들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truck driver*에서 오른쪽 구성 요소인 *driver*는 *drive+er*의 내부 구성을 거치고, *driver*가 상속한 동사의 내부 논항이 비핵 *truck*에 의해 충족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 핵이 동사의 논항구조를 상속하고 비

핵에 의해 내부 논항이 충족되는가 하는 구체적인 설명 양식에 따라 동사성 합성어를 위해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서로 다른 내부 구조가 제안된다.

- (1) a. [[truck drive] -er]  
 b. [truck [drive -er]]

우선 Lieber (1983), Fabb (1984), Sproat (1985), Di Sciullo (1992), Lim (2004) 등은 *truck driver*의 내부 구조가 (1a)라고 주장한다. 반면에 Di Sciullo and Williams (1987), Lieber (1992), Oshita (1995), Plag (2003) 등은 (1b)의 구조를 제시한다. 이와 같이 형태소-기반 모델에서 *truck driver*에 대한 내부 구조를 다르게 설정하는 이유는 어휘부(lexicon)가 어근과 형태소로 구성되어 있고 동사성 합성어는 어근과 형태소를 결합하는 파생과 합성 과정에 의해 형성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Spencer (1988), Becker (1993), Bochner (1993), Booij (1997), Haspelmath (2002) 등에서 발전된 단어-기반 모델을 택하는 본 연구에서는 어휘부가 형태소가 아닌 완전한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동사성 합성어를 형성할 때 어근과 형태소를 결합하여 합성어의 핵을 파생시키는 과정이 필요 없다. 따라서 형태소-기반 모델에서 논쟁의 대상 중 하나인 *truck driver*의 내부 구조가 [[*truck drive*] -er]인지 아니면 [*truck [drive -er]*]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본 연구는 또한 동사성 합성어뿐만 아니라 형태소-기반 모델에서 별도의 합성 과정으로 다루어지던 [N+V] 구조로 이루어진 *daybreak*이나 [V+N] 구조로 이루어진 *pickpocket* 등과 같은 외심 합성어(exocentric compound) 그리고 *baby-sit*처럼 역형성(back-formation)에 의해서 생성된 [N+V] 합성동사들이 모두 단어-기반 모델의 테두리 안에서 일관성 있게 설명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형태소-기반 모델에서 사용하던 기존의 어휘규칙이나 통사규칙 대신에 어휘부에 있는 단어 사이의 상응관계(correspondence)를 어휘도식(word-schema)으로 기술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 2. 합성어 유형의 재고

영어의 합성어는 전체 합성어를 의미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핵이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Dressler 2006). 첫 번째 유형은

내심 합성어(endocentric compound)로서 영어의 경우 오른쪽의 요소가 핵의 역할을 한다<sup>1)</sup> (Williams 1981, Spencer 1991, Katamba 1993). 두 번째 유형은 합성어의 구성 요소 중 어떤 한쪽이 완전한 핵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외심 합성어이다.<sup>2)</sup>

영어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합성어는 어근 합성어(primary/root compound)로서 첫 번째 유형에 속한다. 예를 들어 *bedroom*과 같은 어근 합성어에서 오른쪽 요소는 전체 합성어의 통사범주를 결정하고 의미적으로도 핵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bedroom*은 일종의 방을 지칭하고 *bed*는 *room*을 수식하는 기능을 한다. 동사성 합성어도 내심 합성어의 한 종류인데 *truck driver*의 경우 오른쪽 요소가 핵의 역할을 하며,<sup>3)</sup> 전체 합성어는 'one who drives a truck'의 해석을 가진다.

반면에 *daybreak*, *pickpocket* 등과 같은 합성어는 두 번째 유형에 속한다. 예를 들어 *daybreak*과 같은 외심 합성어에서 오른쪽 요소는 전체 합성어의 통사범주를 결정하지 못하고 의미적으로도 핵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Daybreak*의 경우와 대조를 이루는 외심 합성어도 있는데, 예를 들어 *pickpocket*은 명사로서 오른쪽 요소인 *pocket*과 통사범주가 같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합성어는 외심 합성어에 속한다. 그 이유는 Carstairs-McCarthy (1992: 114)가 지적하듯이, *pocket*이 전체 합성어 *pickpocket*의 의미적인 핵의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pickpocket*은 일종의 *pocket*이 아니라 사람을 지칭한다.

1) 영어, 독일어, 한국어의 내심 합성어는 오른쪽의 요소가 핵이지만 불어의 경우는 왼쪽이 핵의 역할을 한다 (안상철 1998: 515).

2) 합성어에서 핵의 역할을 하는 요소가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한 가지 유형을 더 들 수 있는데 *mother-child*, *bitter-sweet* 등의 경우는 두 어기가 병렬로 연결되어 합성어를 이룬다. 이와 같은 합성어를 동격 합성어(appositional compound)라고 부르는데 (Spencer 1991: 310),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그 이유는 [N+V]의 구조로 된 합성어가 본 연구의 관심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3) 동사성 합성어의 핵은 오른쪽 요소인 동사에 접사가 첨가되어 파생되는데, 접사에는 행위자를 의미하는 *-er*, 동명사나 현재분사형을 만드는 *-ing*, 그리고 과거분사형을 만드는 *-ed(-en)* 등이 포함된다 (Roeper and Siegel 1978, Lieber 1983, Fabb 1984, Carstairs-McCarthy 1992). 이와 같은 접사 외에도 Selkirk (1982), Sproat (1985), Di Sciullo and Williams (1987), Grimshaw (1990) 등은 *slum clearance*, *consumer protection*, *car theft*, *troop deployment*, *property appraisal* 등의 명사형과 *machine-readable*, *water repellent*, *disease inhibitory* 등과 같이 *-able* 등의 다른 접사가 동사에 첨가된 합성어도 동사성 합성어에 포함시킨다. 홍기선 (2001: 822)의 지적대로 동사성 합성어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동사성 합성어의 범위도 다양해질 수 있다.

핵의 의미로부터 전체 합성어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 어근 합성어와 동사성 합성어는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어근 합성어를 구성하는 요소들로부터 전체 합성어의 의미를 항상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전상범 (1995: 369), 안상철 (1998: 513) 등에서 제시된 (2)의 경우처럼 어떤 어근 합성어들은 의미의 합성성 (compositionality)이 없고 의미변천을 겪어 전체 합성어가 의미의 특이성 (idiosyncrasy)을 보인다.

- (2) penknife '주머니 칼'  
 blackmail '협박 편지'  
 paleface '백인'  
 bigwig '거물'

반면에, Katamba (1993: 309)가 지적하듯이, 동사성 합성어는 어휘적 속성보다는 통사적 속성이 강하여 구성 성분의 의미로부터 전체 합성어의 의미를 합성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져 왔다. 문제는 동사성 합성어에서도 구성 요소의 의미로부터 전체 합성어의 의미를 투명하게 파악할 수 없고 (3)의 예들에서 보듯이 어떤 동사성 합성어들은 의미의 특이성을 보인다는 점이다 (Allen 1978, Bauer 1983, Spencer 1991, Oshita 1995).<sup>4)</sup>

- (3) breast feeding, care-taker, chain smoker, food poisoning,  
 jaw-breaker, muzzle-loader, town crier, vacuum cleaner,  
 wind-breaker

그렇다면 어근 합성어와 동사성 합성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Spencer (1991), 김진형 (1992) 등은 상응하는 동사구와의 관련성, 의미의 다양성, 형태 구조의 면에서 그 차이점을 설명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최근에 Lim (2004)은 상응하는 동사구나 의미면에서는 그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고 오직 내부 구조가 다르다는 것으로서만 두 종류의 합성어의 차이점을

4) Bauer (1983: 181)와 Oshita (1995: 189)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vacuum cleaner*는 *vacuum*을 청소하는 도구가 아니고 (cf. *pipe cleaner*), *chain smoker*는 *chain*과 관련이 없으며 (cf. *cigarette-smoker*), *food-poisoning*도 비위생적인 음식에 의해 생긴 질병을 의미한다 (cf. *rat poisoning*).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음 장에서는 그의 연구를 검토하고 그의 연구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자 한다.

### 3. 동사성 합성어의 내부 구조

Selkirk (1982: 28-29)은 자신이 만들어낸 단어인 *tree eater*가 의미적 중의성이 있다고 말한다. 즉, *tree eater*에서 *eat*가 타동사로 해석되어 동사성 합성어가 되면 '나무를 먹는 사람'이라는 뜻이 될 수 있고, 한편으로는 자동사로 해석되어 어근 합성어가 되면 '나무에서 먹는 사람'이라는 뜻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tree eater*가 의미적 중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tree eater*의 내부 구조가 어근 합성어로 해석되든지 아니면 동사성 합성어로 해석되든지에 관계없이 *tree eater*의 구조는 (4b)라고 제안한다. 그 이유는 영어에는 \**tree-eat*과 같은 동사가 없기 때문에  $[N+V]_v$ 는 존재하지 않는 구조라는 것이다. 그러나 Lim (2004)은 *tree eater*의 의미적 중의성이 두 종류의 합성어의 내부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동사성 합성어의 내부 구조는 (4a)인 반면에 어근 합성어는 (4b)의 내부 구조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 (4) a.  $[[N V] \text{-affix}]$   
 b.  $[N [V \text{-affix}]]$

그는 영어에서  $[N+V]_v$ 는 가능한 구조이며 동사성 합성어가 이 구조로부터 형성될 수 있고 더 나아가 이것은  $[N+V]$ 의 구조로 이루어진 외심 합성어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그는  $[N+V]_v$ 로부터 동사성 합성어와 외심 합성어를 형성할 수 있도록 (5)의 조건을 제안한다.<sup>5)</sup>

- (5) a.  $[N+V]$ 의 연쇄는 영어에서 가능한 결합이다. 그러나 이것은 단독으로 사용될 수 있는 독립어가 아니다.  
 b. 따라서 이것이 독립어가 되기 위하여 제로 파생<sup>6)</sup>이나 *-er*, *-ing*,

---

5) i. The concatenation of  $[N V]$  is a possible combination in English but it cannot stand alone as a free word,  
 ii. so it needs a process of zero conversion or affixation of *-er*, *-ing*, and *-ed*, to be a free word (Lim 2004: 653).  
 6) Lim (2004)의 원문에서는 제로 전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것은 전

-ed 등의 접사가 첨가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는 (5)의 조건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예들을 제시한다.

(6) bootblack, daybreak, frostbite, group-think, moonshine, spacewalk

(7) a. \*He is a maker.

b. He is a decision maker.

Lim (2004)에 의하면 *daybreak*과 같은 외심 합성어는 \*[[day]<sub>N</sub> [break]<sub>V</sub>]<sub>V</sub>처럼 단독으로 존재할 수 없는 구조로부터 형성된다. 이 구조가 문법적인 합성어가 되려면 제로 파생의 과정이 필요하다. 즉, 문법적인 합성어의 구조는 [[N+V]<sub>V</sub> Ø]<sub>N</sub>이다. 마찬가지로 *decision maker*와 같은 동사성 합성어도 \*[[decision]<sub>N</sub> [make]<sub>V</sub>]<sub>V</sub>처럼 단독으로 존재할 수 없는 구조로부터 -er, -ing, -ed 등의 접사가 첨가되는 과정을 통해 문법적인 합성어가 된다. 더 나아가 그는 [N+V]<sub>V</sub>뿐만 아니라 \*maker라는 단어 자체도 문장에서 단독으로 사용될 수 없기 때문에 (7a)도 비문법적인 문장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7b)의 예와 같이 \*maker가 *decision*과 함께 사용되면 *decision maker*처럼 문법적인 합성어가 형성된다. 그는 문장에서 단독으로 사용될 수 없는 비독립어(non-free word)라도 다른 단어가 첨가될 경우에 독립어로 사용될 수 있다는 자신의 가정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maker 이외에도 \*goer, \*avoider, \*dweller, \*teller 등의 단어들을 더 제시한다.<sup>7)</sup> 다음의 예들을 보자.

(8) a. \*maker; doll maker, game maker, movie maker, watch maker

b. \*avoider; mouse avoider, proxy avoider, string avoider

c. \*dweller; Baghdad dweller, cave dweller, town dweller

d. \*goer; beach goer, church goer, movie goer, party goer

e. \*teller; fortune teller, future teller, star teller, story teller

우리는 Lim (2004)의 연구에 대해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로 동사성 합성어의 내부 구조에 관한 문제를 거론할 필요가 있다. 동사

---

환(conversion) 혹은 제로 파생(zero derivation)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Aronoff and Fudeman 2005:10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앞으로 제로 파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7) (8)의 합성어들은 Lim (2004: 651)에서 제시된 것들과 같지 않다.

성 합성어를 위한 구조가 [[N V] -접사]여야 한다는 것은 이미 선행 연구들에서도 제안된 바 있다. Lieber (1983)는 핵이 동사의 논항을 상속<sup>8)</sup>하고 그 논항이 비핵에 의해 충족된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Di Sciullo (1992)는 선택 요구(selectional requirement)<sup>9)</sup>라는 측면에서 [[N V] -접사] 구조를 설정한다. 어휘론자들 이외에도 Fabb (1984), Sproat (1985), 김진형 (1992) 등도 통사적인 입장에서 볼 때 [[N V] -접사] 구조를 설정해야 한다고 제안한다.<sup>10)</sup> 그러나 [[N V] -접사] 구조는 영어에 \*truck drive와 같은 동사가 없다는 논거로 비판을 받고 있다. 더욱이 Booij (1988)와 Carstairs-McCarthy (1992: 114) 등이 지적하는 것처럼, 생산적인 동사성 합성어가 영어에서는 생산적이지도 않고 문법적이지도 않은 \*[N V]<sub>v</sub> 구조로부터 생성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이러한 비판을 고려하여 Selkirk (1982), Di Sciullo and Williams (1987), Lieber (1992), Oshita (1995), Plag (2003) 등은 [[N V] -접사]와 상반된 구조인 [N [V -접사]] 구조를 선호한다. 문제는 비록 [N [V -접사]]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 구조로부터 동사성 합성어를 생성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있어도 형태 통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 적합한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다.

동사성 합성어를 어휘 규칙으로 설명하든지 통사규칙으로 설명하든지에 관계없이 선행 연구들이 동사성 합성어를 위한 내부 구조를 설정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어휘부가 어근과 형태소로 구성되어 있고 동사성 합성어는 어근과 형태소를 결합하는 과정을 통해 형성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가정에 기초를 둔 이론을 Haspelmath (2002: 47)는 “형태소-기반 모델(morpheme-based model)”이라고 부르는데 이 이론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은 동사성 합성어의 구조가 [[N V] -접사]인가 아니면 [N [V -접사]]인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둘째로 Lim (2004)은 영어에서 [N+V]<sub>v</sub>가 독립적으로 사용될 수 없어도 접사를 첨가하거나 제로 파생의 과정을 거치면 독립적인 단어로 사용될 수 있다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maker, \*goer, \*avoider,

8) Lieber (1983)는 동사의 논항은 일종의 자질이므로 자질 삼투의 대상이 되며, 자질 삼투는 통사 범주가 같은 지배 마디로 진행된다라고 주장한다.

9) 선택 요구란 동사 V가 자신의 자매로 명사 N을 선택하고 접미사는 자매로 [N+V]<sub>v</sub>를 선택한다는 요구 조건을 말한다.

10) Fabb (1984), Sproat (1985), 김진형 (1992) 등은 통사적인 이유로 [[N V] -접사] 구조를 주장한다. 즉, 동사가 어떤 요소에 의미역을 할당하려면 그 요소를 지배하여야 하므로 통사 구조에서 V와 N이 서로 자매 위치에 있어야 하는 것처럼 합성어에서도 핵 V와 비핵 N은 자매 위치에 있어야 한다.

\**dweller*, \**teller* 등의 단어들도 비록 독립적으로 사용될 수 없지만 다른 단어가 첨가될 경우에 독립적인 단어로 사용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단어들이 자주 사용되지 않을지라도 독립적으로 사용되어 문법적인 문장을 형성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http://www.yahoo.com>에서 검색한 예문 중 일부만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 (9) a. It's not an easy thing to meet your maker.  
 b. Are you a seeker or an avoider? You can change avoidance behaviors; trainers play a crucial role.  
 c. Bored on the train? Give dweller a go.  
 d. Be a goer.  
 e. Truth never hurts the teller. (Robert Browning)

셋째로 Lim (2004)은 (10a)의 외심 합성어들이 영어에는 존재하지 않는 구조인  $*[N+V]_V$ 로부터 제로 파생이라는 과정에 의해 생성된다고 주장한다. 영어에는 (10a)의 외심 합성어들 이외에 (10b)의 예들과 같이  $[V+N]_N$ 의 구조를 가진 외심 합성어도 있다. Lim은 (10b)의 합성어들을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이 합성어들도 형태소-기반 모델의 테두리 안에서는 제로 파생의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오른쪽 요소가 전체 합성어의 통사범주를 결정하지만 의미적으로 핵의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 (10) a. bootblack, daybreak, frostbite, moonshine, spacewalk  
 b. cutthroat, dreadnought, kill-joy, pickpocket, spoilsport, turncoat

종합적으로 Lim (2004)이 동사성 합성어와  $[N+V]$ 로 이루어진 외심 합성어 형성을 위하여 제안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 (11) a. 동사성 합성어 :  $[[N+V]_V - \text{접사}]$   
 b. 외심 합성어 :  $[[N+V]_V \emptyset]_N$

(11)에서 Lim은 두 종류의 합성어를 일관성 있게 설명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는 영어에 존재하는  $[V+N]$  구조로 이루어진 외심 합성어와 역형성에 의해서 생성된  $[N+V]$  합성 동사들은 다루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합성어들은 형태소-기반 모델로는 일관성 있게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 4. 단어-기반 모델에 의한 재분석

본 장에서는 합성어의 유형을 동사성 합성어, [N+V]와 [V+N] 등의 구조로 된 외심 합성어, 그리고 역형성에 의해 생성된 [N+V] 합성 동사로 재분류하고 이와 같은 합성어들이 Spencer (1988), Becker (1993), Bochner (1993), Booij (1997), Haspelmath (2002)<sup>11)</sup> 등에서 발전된 단어-기반 모델의 테두리 안에서 통합적으로 기술될 수 있음을 보여 주고자 한다.

##### 4.1. [N+V] 합성어

2장에서 우리는 전체 합성어를 통사범주와 의미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핵이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내심 합성어와 외심 합성어로 구분하였다. 이 기준에 따라 [N+V]의 구조를 가진 합성어들의 유형을 다시 분류하면 동사성 합성어는 의미적 특이성을 보이는 예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내심 합성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앞 장에서 언급한 [N+V] 구조로 된 *daybreak*과 [V+N] 구조로 된 *pickpocket* 등은 외심 합성어에 속한다. 또한, 영어에는 동사성 합성어나 외심 합성어와 유형을 달리 하는 (12)의 예들과 같은 합성어들이 있다 (Selkirk 1982, Oshita 1995).

- (12) air-condition, baby-sit, blockbust, brainwash, breast-feed,  
carbon-copy, carbon-date. handwrite, housekeep, head-hunt,  
henpeck, sky-dive, spoon-feed, vacuum-clean

(12)에 있는 합성어들은 역형성(back-formation)에 의해 도출된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내부 구조가 [[air]<sub>N</sub>[condition]<sub>V</sub>]<sub>V</sub>인 동사 *air-condition*은 *air-conditioner*에서 그리고 동사 *baby-sit*은 *baby-sitter*로부터 역형성에 의해 도출된 것으로 보는데, 이와 같은 합성어들은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우선 외견상 [N+V]<sub>V</sub> 구조로 되어 있으나 제로 파생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사용되어도 완전히 문법적이라는 점에서 (10a)에 있는 외심 합

11) 단어-기반 모델은 주로 역형성과 괄호매김 모순(bracketing paradox)을 설명하기 위하여 발전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 모델을 동사성 합성어와 외심 합성어에도 확대 적용하려고 한다.

성어들과 다르다는 특징이 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오른쪽 요소가 전체 합성어의 통사 범주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내심 합성어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나 그 요소가 의미적으로 핵의 역할을 하지 못 한다는 점에서 보면 외심 합성어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 형태소-기반 모델의 테두리 안에서는 (12)의 예들과 같은 합성어들을 다루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역형성에 의해 생성된 합성어들을 통시적(diachronic) 현상으로 보기 때문이며, 또 하나의 이유는 영어에서 명사와 동사를 결합하여  $[N+V]_v$  구조를 가진 합성어를 만드는 규칙은 생산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그러나 Bauer (1983: 65)와 Becker (1993: 6) 등이 지적하는 것처럼 역형성에 의한 합성어들은 "현대 영어에서도 여전히 볼 수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공시적(synchronic) 연구에서도 다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의미적으로 *baby-sit*과 *baby-sitter*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도 설명되어야 한다.

#### 4.2. 단어-기반 모델의 개요

여기에서는 Haspelmath (2002)와 Plag (2003)에서 제시된 단어-기반 모델의 기본 개념과 어휘부에서 서로 관련이 있는 단어들 사이의 상응관계를 어떻게 기술하는지를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지금까지 생성형태론에서는 어휘부가 어근과 형태소로 이루어지고 어근과 형태소를 결합하는 형태규칙에 의해 복합어를 형성한다는 것이 지배적인 생각이었다. 이것은 마치 단어들을 통사규칙에 의해 연결하여 문장을 생성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 (Aronoff 1976, Selkirk 1982, Spencer 1991). 예를 들어 *unfair*와 같은 복합어는 (13a)의 어휘항목(lexical entry)을 가진 파생접두사 *un-*과 (13b)의 어휘항목을 가진 어근 *fair*가 결합하여 생성된다.

- (13) a.  $\left[ \begin{array}{c} /ʌn/ \\ \text{— } A \\ \text{'not'} \end{array} \right]$       b.  $\left[ \begin{array}{c} /fɛər/ \\ A \\ \text{'fair'} \end{array} \right]$

이와 같이 어근과 형태소를 결합하여 복합어를 생성하는 것이 형태소-기반 모델에 의한 방법이라면 단어-기반 모델에서는 어휘부가 형태소가 아닌 완전한 단어들로 구성되고 어휘부에서 단어들 사이의 상응관계를 어휘도식(word schema)<sup>12)</sup>으로 기술한다. 예를 들어 단어-기반 모델에서 (14a)의 단어들 사이의 공통점은 *unfair*, *unhappy*, *unlucky*, *unpopular*, *unstable* 등을

파생접두사 *un-*과 어근 *fair, happy, lucky, popular, stable* 등으로 나누어 파악하지 않고 (14b)나 (14c)의 어휘도식으로 표현한다.<sup>13)</sup>

(14) a. *unfair, unhappy, unlucky, unpopular, unstable*

$$\begin{array}{cc}
 \text{b.} & \text{c.} \\
 \left[ \begin{array}{c} /unX/ \\ A \\ 'not\ x' \end{array} \right] & \left[ \begin{array}{c} /unX/A \\ 'not\ x' \end{array} \right]
 \end{array}$$

(14c)의 어휘도식에서 변수 /X/와 ('x')를 사용한 것은 (14a)의 서로 관련이 있는 단어들 사이의 공통된 특징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한편 어휘부에는 (14a)의 단어들을 포함하는 (14c)의 어휘도식도 있고 (14a)와 관련이 많은 (15a)의 단어들을 포함하는 (15b)의 어휘도식도 존재한다.

(15) a. *fair, happy, lucky, popular, stable*

$$\text{b.} \left[ \begin{array}{c} /X/A \\ 'x' \end{array} \right]$$

이제 (14c)와 (15b)의 어휘도식에 근거하여 (14a)의 단어들과 (15a)의 단어들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형태적 상용관계를 나타내는 (16)의 규칙으로 파악할 수 있다.<sup>14)</sup>

$$(16) \left[ \begin{array}{c} /X/A \\ 'x' \end{array} \right] \approx \left[ \begin{array}{c} /unX/A \\ 'not\ x' \end{array} \right]$$

12) 어휘도식은 발음, 통사적 속성, 의미 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휘항목과 유사하다. 그러나 어휘항목이 단어뿐만 아니라 형태소도 나타내지만 반면에 어휘도식은 완전한 단어들만 나타낸다는 점에서 이들은 서로 다르다.

13) (14c)에서 통사범주에 관한 정보는 아래 첨자로 나타내는데 이것은 (14b)의 표기 방식을 간략하게 한 것으로 지면을 절약하기 위하여 앞으로 사용될 표기 방식이다.

14) 어휘도식 사이에 형태적 상용관계를 나타내기 위하여 Becker (1993)는 한 방향 화살표(→) 그리고 Haspelmath (2002)는 양방향 화살표(↔)를 사용한다. 그러나 화살표 기호를 사용하는 것은 어형성의 방향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 기호를 사용한다. 이 기호는 왼쪽의 어휘도식과 일치하는 단어들에 대해 오른쪽 어휘도식과 일치하는 상용하는 단어가 있음을 의미한다.

#### 4.3. [N+V] 외심 합성어 분석

우선 단어-기반 모델의 테두리 안에서 [N+V] 외심 합성어를 분석하기 위하여 (17)의 예들을 보자.

(17) bootblack, daybreak, moonshine, spacewalk, frostbite

(17)의 외심 합성어들은 형태소-기반 모델에서 \*[N+V]<sub>v</sub>의 내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단독으로 존재할 수 없는 \*[N+V]<sub>v</sub> 구조로부터 문법적인 외심 합성어를 생성하기 위하여 Lim (2004: 653)은 제로 파생의 과정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그런데 Katamba (1993: 55)와 Lieber (1992: 84) 등이 지적하듯 복합어를 도출하기 위하여 제로를 사용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많다. 그러나 단어-기반 모델에서는 \*[N+V]<sub>v</sub>와 같이 단독으로 존재할 수 없는 구조를 설정한 후에 제로 파생의 과정을 통해 외심 합성어를 도출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daybreak*과 같은 외심 합성어를 생성하는 것은 (18)의 규칙으로 기술할 수 있다.<sup>15)</sup>

$$(18) \left[ \begin{array}{c} /day/N \\ 'day' \end{array} \right] \& \left[ \begin{array}{c} /break/V \\ 'break' \end{array} \right] \approx \left[ \begin{array}{c} /day\ break/N \\ 'dawn' \end{array} \right]$$

(18)의 규칙에서 우리는 세 가지 사항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로 오른쪽의 합성어를 위한 어휘도식에는 음운적으로 특이한 사항이 없다. 즉, 합성어를 구성하는 두 요소의 음운 정보가 전체 합성어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둘째로 합성어와 핵의 통사 범주가 서로 다르다. 셋째로 합성어의 의미는 그 합성어를 구성하는 특정한 한 요소의 의미보다 한 요소와 다른 요소가 결합하여 전체 합성어를 구성하는 과정 전체와 관련이 있다. 여기에서 지적한 두 번째와 세 번째 사항은 외심 합성어의 속성을 잘 나타낸다.

#### 4.4. [V+N] 외심 합성어 분석

다음으로 형태소-기반 모델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은 (19)에 제시된 것과 같은 유형의 합성어를 살펴보자.

15) 합성어에서 오른쪽과 상응관계에 있는 왼쪽이 두개의 어휘도식으로 구성되어야 함을 나타내기 위해 '&' 표시를 사용한다.

(19) pickpocket, cutthroat, dreadnought, kill-joy, spoilsport, turncoat

예를 들어 *pickpocket*과 같은 합성어는 형태소-기반 모델에서 [[pick]<sub>v</sub> [pocket]<sub>N</sub>]<sub>N</sub>의 구조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 구조에서 주목할 점은 전체 합성어와 핵의 통사범주가 서로 같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형태소-기반 모델에서는 합성어가 갖는 추가적 의미를 얻기 위해 제로 파생의 과정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단어-기반 모델에서는 제로 파생의 과정 없이 (19)의 합성어들이 어떻게 생성되는지를 다음의 규칙으로 보여줄 수 있다.<sup>16)</sup>

$$(20) \left[ \begin{array}{c} /X/v \\ 'do_x' \end{array} \right] \& \left[ \begin{array}{c} /Y/N \\ 'y' \end{array} \right] \approx \left[ \begin{array}{c} /XY/N \\ 'person\ who\ does_x\ y' \end{array} \right]$$

(20)에서 변수 /X/는 *pick*, *turn* 등과 같은 동사를 그리고 /Y/는 *pocket*, *coat* 등의 명사를 나타낸다. (20)의 규칙에서 오른쪽에 있는 합성어를 위한 어휘도식에는 음운적인 면과 통사 범주의 면에서 특이한 사항이 없다. 즉, 합성어를 구성하는 두 요소의 음운 정보가 전체 합성어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고 합성어와 핵의 통사 범주도 서로 같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전체 합성어의 의미가 'person'과 같은 추가적인 성분을 포함한다는 것인데 합성어를 구성하는 어떤 요소에서도 이러한 추가적 의미를 파악할 수 없다. 이 의미는 어떤 특정한 한 요소의 의미보다 한 요소와 다른 요소가 결합하여 전체 합성어를 구성하는 전체 과정과 관련이 있다.

우리는 (19)에 있는 영어의 외심 합성어와 유사한 경우를 이탈리아어에서 발견할 수 있다. 다음의 예들을 보자 (Haspelmath 2002: 88).

- (21) portabagagli 'trunk' (portare 'carry' + bagagli 'luggage')  
 lavapiatti 'dishwasher' (lavare 'wash' + piatti 'dishes')  
 asciugacapelli 'hair dryer' (asciugara 'dry' + capelli 'hairs')

(21)의 합성어들도 영어의 *pickpocket*처럼 [V+N]<sub>N</sub>의 구조를 갖고 있지만 외심 합성어로 분류된다. 그 이유는 합성어의 의미가 합성어를 구성하는 요소들 중에서 어떤 한 요소의 의미로부터 파악될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16) (20)에서 'do<sub>x</sub>'와 같이 변수를 사용하는 것은 행동을 의미하는 다양한 동사들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들어 *lavapiatti*와 같은 합성어에는 'instrument'라는 추가적 의미를 지닌 형태소가 없다. 이 추가적 의미는 어떤 특정한 한 요소의 의미보다 한 요소와 다른 요소가 결합하여 전체 합성어를 구성하는 전체 과정과 관련이 있다. Haspelmath (2002)는 다음의 규칙으로 (21)에 있는 합성어들이 어떻게 생성되는지를 보여준다.<sup>17)</sup>

$$(22) \left[ \begin{array}{c} /Xre/v.INF \\ 'do_x' \end{array} \right] \& \left[ \begin{array}{c} /Y/N \\ 'y_s' \end{array} \right] \approx \left[ \begin{array}{c} /XY/N.SG \\ 'instrument for doing_x y_s' \end{array} \right]$$

#### 4.5. 동사성 합성어 분석

다음으로 단어-기반 모델의 테두리 안에서 동사성 합성어를 논의해보자.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형태소-기반 모델에서는 *truck driver*와 같은 동사성 합성어가 두 어근 *truck*과 *drive* 그리고 접미사 *-er*이 결합하여 생성된다고 본다. 따라서 이와 같은 가정에 근거를 둔 연구에서는 동사성 합성어를 위한 내부 구조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졌다. 그러나 *truck driver*와 같은 동사성 합성어가 단어-기반 모델에서는 어근과 형태소의 결합이라고 보지 않고 어휘부에 *truck*, *drive*, *driver* 등의 단어가 이미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그리고 관련이 있는 단어들 간의 상용관계를 어휘도식으로 파악하는데 *truck driver*와 같은 동사성 합성어는 두 어휘도식과 동시에 일치한다. 첫째, 이 동사성 합성어는 (23)의 오른쪽에 있는 행위자(agent) 명사의 어휘도식과 일치한다.

$$(23) \left[ \begin{array}{c} /X/v \\ \text{SUBJ} - \text{OBJ} \\ | \quad | \\ \text{agent}_i \quad \text{patient}_j \\ 'A_i \text{ does}_x \text{ on } B_j' \end{array} \right] \approx \left[ \begin{array}{c} /Xer/N \\ \text{OBJ} \\ | \\ \text{patient}_j \\ 'person \text{ who does}_x \text{ on } B_j' \end{array} \right]$$

(23)에서 변수 /X/는 *drive*와 같은 동사를 그리고 /Xer/는 *driver*와 같은 행위자 명사를 나타낸다. (23)의 어휘도식에서 주목할 점은 왼쪽에 있는 동사의 어휘도식이 발음, 통사범주, 의미 등에 관한 정보 이외에 추가적으로

17) (22)에서 'ys'는 복수 y들을 의미한다.

동사의 속성가(valence)에 관한 정보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동사와 상응관계에 있는 (23)의 오른쪽에 있는 행위자 명사도 동사의 속성가를 그대로 상속한다. 단, Fabb (1984)와 Rappaport Hovav and Levin (1992)에서 지적된 것처럼, 행위자 명사가 동사의 속성가를 상속할 때 동사의 외부 논항(external argument)은 행위자 명사에 흡수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행위자 명사가 동사의 외부 논항으로 이해되는 개체(entity)와 일치하기 때문이다.

둘째, *truck driver*와 같은 동사성 합성어는 (24)의 오른쪽에 있는 명사 합성어의 어휘도식과 일치한다.

$$(24) \left[ \begin{array}{c} /X/N \\ \\ 'x' \end{array} \right] \& \left[ \begin{array}{c} /Y/N \\ \text{OBJ} \\ | \\ \text{patient}_i \\ \text{'person who does}_y \\ \text{on } A_i' \end{array} \right] \approx \left[ \begin{array}{c} /XY/N \\ \\ \text{'person who does}_y \\ \text{on } x_i' \end{array} \right]$$

(24)에서 변수 /X/는 *truck*과 같은 명사를 그리고 /Y/는 (23)의 오른쪽 어휘도식과 일치하는 *driver*와 같은 행위자 명사를 나타낸다. (24)의 어휘도식에서 볼 수 있듯이 행위자 명사의 속성가는 피행위자(patient)를 필요로 하는데 이것은 합성어의 비핵에 의해 충족된다. 따라서 *truck driver*는 문법적인 동사성 합성어로 판단될 수 있다. 그리고 행위자 명사의 속성가에 외부 논항이 없으므로 (25)의 예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동사성 합성어에서 비핵이 핵의 주어 역할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Selkirk 1982: 34).

- (25) a. \*The hours for [girl swimming] at this pool are quite restricted.  
 b. \*There's been a lot of [weather changing] around here lately.  
 c. \*[Kid eating] makes such a mess.

(23)의 어휘도식은 *drive*와 같은 동사가 타동사로 사용되어 의무적으로 내부 논항을 택하는 경우를 위한 것이다. 반면에 자동사로 사용되어 의무적인 내부 논항을 택하지 않을 경우 이러한 점을 (26)의 어휘도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26) \begin{bmatrix} /X/V \\ \text{SUBJ} \\ | \\ \text{agent}_i \\ \text{'A}_i \text{ acts}_x' \end{bmatrix} \approx \begin{bmatrix} /Xer/N \\ \\ \\ \text{'person who acts}_x' \end{bmatrix}$$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drive*와 같은 동사가 의무적으로 내부 논항을 택할 때 이 논항은 합성어의 비핵에 의해 충족된다. 다시 말하자면 비핵은 핵의 내부 논항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이 때 *truck driver*와 같은 합성어는 동사성 합성어의 해석을 받게 된다. 그러나 (26)의 어휘도식이 보여주는 것처럼 *drive*와 같은 동사가 의무적으로 내부 논항을 택하지 않을 경우 행위자 명사의 속성가는 내부 논항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합성어의 왼쪽 요소는 핵의 내부 논항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 이 경우 *truck driver*와 같은 합성어는 Spencer (1991)의 지적처럼 어근 합성어의 해석을 받게 된다. 따라서 이 합성어는 혼하지 않게 'someone who drives around on trucks'의 의미로 사용될 수도 있다. (27)의 예들은 동사성 합성어처럼 보이지만 어근 합성어의 해석을 받는 것들이다 (Oshita 1995, Haspelmath 2002, Plag 2003).

(27) *screwdriver*, *city driver*, *desert driver*, *moon driver*, *Sunday driver*

이제 Selkirk (1982)이 의미적 중의성이 있다고 말하는 *tree eater*의 경우를 논의해보자. *Tree eater*가 '나무를 먹는 사람'이라는 뜻의 동사성 합성어로 해석을 받는 경우는 (24)의 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 반면에, (27)의 예들과 마찬가지로 *tree eater*가 '나무에서 먹는 사람'이라는 뜻의 어근 합성어로 해석을 받는 경우는 (26)의 어휘도식과 (28)의 어휘도식으로 기술된다.

$$(28) \begin{bmatrix} /X/N \\ \text{'x'} \end{bmatrix} \& \begin{bmatrix} /Y/N \\ \text{'y'} \end{bmatrix} \approx \begin{bmatrix} /XY/N \\ \text{'a y that has something to do} \\ \text{with x'} \end{bmatrix}$$



(28)에서 변수 /X/는 *tree*와 같은 명사를 그리고 /Y/는 (26)의 오른쪽 어휘도식과 일치하는 *eater*와 같은 행위자 명사를 나타낸다. (28)의 어휘도식은 원래 Haspelmath (2002: 49)가 *baby-sitter*와 같은 어근 합성어의 생성을 보여주기 위하여 제안한 것으로 본고에서는 그의 제안에 근거하여 (28)의 어휘도식을 *tree eater*나 *truck driver*가 어근 합성어의 해석을 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한편 동사성 합성어 중에는 행위자 명사가 *give*처럼 두 개의 내부 논항을 택하는 동사로부터 생성된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동사들은 대상(Theme)과 목표(Goal)를 내부 논항으로 택하는데 두 개의 내부 논항 중에서 (29)의 예문이 보여주는 것처럼 목표(Goal)가 아니라 대상(Theme)이 비핵으로 나타난다.<sup>18)</sup>

- (29) a. He gives his child money.  
 b. \*child giver  
 c. money giver

(29c)의 *money giver*와 같이 두 개의 내부 논항을 택하는 동사로부터 생성된 행위자 명사가 핵인 동사성 합성어는 두 어휘도식과 동시에 일치한다. 첫째, 이 동사성 합성어는 (30)의 오른쪽에 있는 행위자 명사의 어휘도식과 일치한다.

$$(30) \left[ \begin{array}{c} /X/_V \\ \text{SUBJ} - \text{OBJ} - \text{IOBJ}_o \\ | \quad | \quad | \\ \text{agent}_i \quad \text{theme}_j \quad \text{goal}_k \\ \text{'A}_i \text{ acts}_x \text{ B}_j \text{ to C}_k \text{' } \end{array} \right] \approx \left[ \begin{array}{c} /Xer/_N \\ \text{OBJ} - \text{IOBJ}_o \\ | \quad | \\ \text{theme}_j \quad \text{goal}_k \\ \text{'person who acts}_x \text{ B}_j \text{ to C}_k \text{' } \end{array} \right]$$

(30)에서 변수 /X/는 *give*처럼 두 개의 내부 논항을 택하는 동사를 그리고 /Xer/는 *giver*와 같은 행위자 명사를 나타낸다. (30)에서 보듯이 어휘도식의 오른쪽에 있는 행위자 명사는 [theme goal]의 논항구조를 가진다. 이 행위자 명사와 함께 동사성 합성어를 형성할 때 대상(Theme)은 합성어 안에서 비핵에 의해 충족되지만 목표(Goal)는 합성어 밖에서 수의적으로 충족

18) 대상(Theme)이 비핵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advice giver*, *bribe giver*, *charity giver*, *job-giver*, *support giver* 등에서도 볼 수 있다 (Lim 2004: 644).

될 수 있으며 영어에서 그 반대의 경우는 없다. 따라서 *money giver to children*은 문법적인 동사성 합성어지만 \**child giver money*는 문법적인 합성어가 아니다. 둘째, *money giver*와 같은 동사성 합성어는 (31)의 오른쪽에 있는 명사 합성어의 도식과 일치한다.

$$(31) \left[ \begin{array}{c} /X/N \\ \\ 'x' \end{array} \right] \& \left[ \begin{array}{c} /Y/N \\ \\ \text{OBJ} \quad - \quad \text{IOBJ}_{io} \\ | \quad \quad | \\ \text{theme}_i \quad \text{goal}_j \\ \text{'person who acts}_y \\ A_i \text{ to } B_j' \end{array} \right] \approx \left[ \begin{array}{c} /XY/N \\ \\ \text{IOBJ}_{io} \\ | \\ \text{goal}_j \\ \text{'person who acts}_y \\ x \text{ to } B_j' \end{array} \right]$$

(31)에서 변수 /X/는 *money*와 같은 명사를 그리고 /Y/는 (30)의 오른쪽에 있는 *giver*와 같은 행위자 명사를 나타낸다. (31)의 어휘도식에서 볼 수 있듯이 *giver*와 같은 행위자 명사의 속성가는 대상(Theme)을 필요로 하는데 이것은 합성어 안에서 비핵에 의해 충족되고 목표(Goal)는 합성어 밖에서 수의적으로 충족될 수 있다.

Lim (2004)은 목표(Goal)도 합성어 안에서 비핵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증거로 *church giver*와 같은 예를 든다. 그러나 *church giver*에서 주어지는 것은 말하자면 돈과 같은 물건이지 교회가 아니다. 이 경우 돈과 같은 물건이 암묵적인 대상(Theme)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31)은 *give*와 같이 두 개의 내부 논항을 택하는 동사와 함께 동사성 합성어를 형성하는 경우를 기술하는데 적합한 어휘 도식인 것 같다.

#### 4.6. [N+V] 합성 동사 분석

마지막으로 *baby-sitter*로부터 역형성에 의해 생성된 *baby-sit*과 같은 합성 동사를 보자. 역형성은 통시적 과정으로 간주되어 형태소-기반 모델에서는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단어-기반 모델에서는 *baby-sit*과 같은 [N+V]의 구조로 이루어진 합성 동사가 어떻게 *baby-sitter*로부터 역형성에 의해 생성되는지를 다음과 같은 규칙으로 간단하게 기술할 수 있다.

$$(32) \left[ \begin{array}{c} /Xer/N \\ \text{'one who act}_x\text{' } \end{array} \right] \approx \left[ \begin{array}{c} /X/V \\ \text{'act}_x\text{' } \end{array} \right]$$

(32)의 왼쪽에 있는 어휘도식은 *baby-sitter*를 나타내고 오른쪽은 *baby-sit*을 나타내는데 *baby-sitter*의 생성과정은 (28)에서 이미 기술된 바 있다. (32)의 규칙은 *baby-sit*과 *baby-sitter*가 형태적 상용관계에 있으며 의미적으로도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 5. Conclusion

영어에서 [N+V]의 구조로 된 동사성 합성어와 외심 합성어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어휘부가 어근과 형태소로 구성되고 어근에 접사를 첨가하는 과정을 통해 이와 같은 합성어들이 형성된다는 가정에 기초를 두고 이루어졌다. 따라서 동사성 합성어의 경우에는 핵이 어기 동사의 논항구조를 상속하고 합성어의 비핵에 의해 내부 논항이 어떻게 충족되는가 하는 설명 방법에 따라 내부 구조가 [[N V] -접사]인지 아니면 [N [V -접사]]인지가 중요한 논의 주제 중 하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단어-기반 모델의 테두리 안에서 어휘부가 형태소로 구성되지 않고 완전한 단어로 구성된다는 가정에 기초를 두고 어휘부내에서 관련성이 있는 단어들 사이의 상용관계를 어휘도식으로 파악하였다. 단어-기반 모델에서는 형태소를 결합하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동사성 합성어와 외심 합성어를 생성하기 위해 영어에는 존재하지 않는 \*[N+V]<sub>v</sub> 구조를 설정한 후에 접사 첨가나 제로 파생의 과정을 통해 이 합성어들을 형성할 필요가 없는 장점이 있었다. 더 나아가 어휘도식에 의해 동사성 합성어, [N+V]/[V+N] 외심 합성어, 역형성에 의해 생성된 [N+V] 합성 동사들을 일관성 있게 설명할 수 있었다.

## References

- 김진형. (1992). *영어와 한국어의 어형성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안상철. (1998). *형태론* (대우학술총서 인문사회과학 105). 서울: 민음사.
- 전상범. (1995). *형태론*. 서울: 한신문화사.
- 홍기선. (2001). 영어의 동사성 복합어: 논항과 부가어. *언어*, 26(4), 821-843.
- Allen, Margaret. (1978). *Morphological Investigations*.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onnecticut.
- Aronoff, Mark. (1976). *Word Formation in Generative Grammar*. Cambridge, Mass.: MIT Press.
- Aronoff, Mark and Kirsten Fudeman. (2005). *What is Morphology?* Malden: Blackwell Publishing.
- Bauer, Laurie. (1983). *English Word-form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ecker, Thomas. (1993). Back-formation, cross-formation, and 'bracketing paradoxes' in paradigmatic morphology. In Geert Booij and Jaap van Marle (Eds.), *Yearbook of Morphology 1993*. (pp. 1-25). Dordrecht: Kluwer.
- Bochner, Harry. (1993). *Simplicity in Generative Morphology*. Berlin: de Gruyter.
- Booij, Geert. (1988). The relation between inheritance and argument linking: deverbal nouns in Dutch. In M. Everaert, A. Evers, R. Huybregts, and M. Trommelen (Eds.), *Morphology and Modularity: in Honour of Henk Schultink*. 1988. (pp. 29-44). Dordrecht: Foris.
- Booij, Geert. (1997). Autonomous morphology and paradigmatic relations. In Geert Booij and Jaap van Marle (Eds.), *Yearbook of Morphology 1996*. (pp. 35-53). Dordrecht: Kluwer.
- Carstairs-McCarthy. (1992). *Current Morphology*. London: Routledge.
- Di Sciullo, Anna-Maria. (1992). Deverbal compounds and the external argument. In I. M. Roca (Ed.), *Thematic Structure: Its Role in Grammar*. (pp. 65-78). New York: Foris.
- Di Sciullo, Anna-Maria. (1997). On Word-structure and Conditions. In Anna-Maria Di Sciullo (Ed.), *Projections and Interface Conditions: Essays on Modularit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Di Sciullo, Anna-Maria, and Edwin Williams. (1987). *On the Definition of Word*. Cambridge, Mass.: MIT Press.
- Dressler, Wolfgang U. (2006). Compound Types. In Gary Libben and Gonia Jarema (Eds.), *The Representation and Processing of Compound Words*. (pp. 23-44).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Fabb, Nigel. (1984). *Syntactic Affixation*. Ph.D. dissertation, MIT.
- Grimshaw, Jane. (1990). *Argument Structure*. Cambridge, Mass.: MIT Press.
- Haspelmath, Martin. (2002). *Understanding Morpholo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Inc.
- Hovav, Malka Rappaport and Beth Levin. (1992). -Er nominals: implications for the theory of argument structure. In E. Wehrli and T. Stowell (Eds.), *Syntax and the Lexicon*. Syntax and Semantics 26. (pp. 127-153). New York: Academic Press.
- Katamba, Francis. (1993). *Morphology*. London: The Macmillan Press Ltd.
- Lieber, Rochelle. (1983). Argument linking and compounds in English. *Linguistic Inquiry* 14, 251-285.
- Lieber, Rochelle. (1992). *Deconstructing Morpholog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im, Jongseong. (2004). Remarks on Synthetic Compounding. *Korean Journal of Linguistics*, 29-4: 635-660.
- Oshita, Hiroyuki. (1995). Compounds: A view from suffixation and a-structure alteration. In Geert Booij and Jaap van Marle (Eds.), *Yearbook of Morphology 1994*. (pp. 179-205). Dordrecht: Kluwer.
- Plag, Ingo. (2003). *Word-Formation in English*.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oeper, Thomas and Muffy E. A. Siegel. (1978). A lexical transformation for verbal compounds. *Linguistic Inquiry* 9, 199-260.
- Selkirk, Elisabeth. (1982). *The Syntax of Words*. Cambridge, Mass.: MIT Press.

- Spencer, Andrew. (1988). Bracketing paradoxes and the English lexicon. *Language* 64: 663-82.
- Spencer, Andrew. (1991). *Morphological Theory*. Oxford: Basil Blackwell.
- Sproat, Richard. (1985). *On Deriving the Lexicon*. Ph.D. dissertation, MIT.
- Williams, Edwin. (1981). On the notions 'lexically related' and 'head of a word.' *Linguistic Inquiry* 12, 245-274.

장용선

139-742 서울시 노원구 공릉2동 26-21

삼육대학교 인문사회대학 영미어문학부

전화: 02-3399-1522

이메일: [jangys@syu.ac.kr](mailto:jangys@syu.ac.kr)

Received: 30 Jul, 2006

Revised: 30 Aug, 2006

Accepted: 15 Sep, 2006